

익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종료

가축질병 발생 안해... 구제역·AI 상시방역체계 전환 구제역 접종완료 따라 돼지농가 1곳 선정 모니터링

익산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지난 31일로 종료되어 구제역·AI 상시방역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고병원성 AI 전국 22건, 전라북도 2건, 구제역 전국 2건이 발생하였으나 방역취약점을 분석, 사전 대응하는 등 전략적인 방어로 악성 가축질병이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고 청정익산을 사수했다.

그동안 시는 시장을 분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및 거점통제 초소 11개소를 설치·운영했으며 생석회 1.785포, 소독약 5.863L, 5.613kg을 공급하여 농가단위의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했고 가금농장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방역취약지구, 중점방역관리 지역 등 예찰활동을 실시했다.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농가 소독을 실시했으며 익산·군산축협 공동방제단과 축산과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철새도래지(만경강, 금강)소독에 만전을 기했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에 따라 발생지역 우제류가축 반입금지를 권고하고 함라면 소재 가축시장 1개소를 일시 폐쇄(34일간) 했으며 우리 시가 지리적으로 과거발생지역인 충남과 인접되어 있어 구제역백신을 도내에서 가

장 우선적으로 공급받아 우제류(소·돼지·염소) 22만두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했다.

현재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완료에 따라 항체(A형)형성률을 확인하기 위해 돼지농가 1농가를 선정하여 모니터링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시방역체제로 전환 시에도 철새도래지, 소규모농가,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취약지역과 중점방역관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우제류 농가 및 도축장 협정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항체형성을 저조농가의 집중지도 점검을 통하여 18년도 하반기 방역대책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축산농가들 정기적인 농장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등 선제적인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백제왕궁에서 왕과의 하룻밤을

익산시, 천년별밤 캠프 운영

익산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세계유산인 백제왕궁 왕궁리유적(사적 제408호)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탐방객을 대상으로 백제왕궁 천년별밤 캠프를 운영한다.

세계유산 백제왕궁 천년별밤 캠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왕궁 익산 왕궁리유적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세계유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는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6회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가족단위로 회당 40여 명씩 선착순 사전신청을 받아 운영된다.

사전신청을 마친 참가자들은 캠프 당일 16시 30분부터 왕궁리유적에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백제왕궁의 역사적 의미를 배우기 위한 왕궁리유적전시관 탐방을 시작으로 서동이 무왕이 되기까지 겪었을 다양한 고난극복의 이야기를 5~6개의 미션수행 활동을 통해 경험해보는 왕궁올림픽, 현재와 백제시대의 별밤을 연결하는 의식적 행위를 통해 백제인과의 신비로운 교감을 연출하는 은하수행렬, 등불을 들고 왕궁리

층석담을 돌며 참가자들의 소원을 기원하는 천년희망나눔 등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과거의 백제인과 하나가 되는 색다른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체계적으로 인정받은 왕궁리유적에서 백제왕궁 천년별밤 캠프에 참가한 가족들은 찬란한 백제 역사의 숨결을 느끼며 가족 간의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는 총 6회(6월 2~3일, 7월 20~21일, 7월 21~22일, 9월 15~16일, 10월 5~6일, 10월 6~7일)에 걸쳐 오후5시에서 다음날 오전11시까지 진행되며 특히 23.566차는 익산 문화재 야행과 연계되어 더욱 알찬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정 또는 시간은 기상상황과 계절적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예약 및 캠프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길 청소년활동 연구소(070-8223-0504, 070-7563-8834)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오늘부터 확대 시행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에서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이후 5월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월 1일부터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100인 이상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기업에 지원을 보다 강화시키면서 지원수준도 1인당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익산=정양원기자

'폐쇄' GM 군산공장 가동방안 마련 촉구

군산시, 다각적인 방법 모색 "실효성 있는 지원 마련 해야"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난 31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를 찾아 지엠 군산공장의 조속한 재할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전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군산시 문용득 지역경제과장 등은 지엠 군산공장이 폐쇄 발표 3개월여 만인 5.31일 완전히 문을 닫는데 대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지엠 본사를 방문했다.

나 국장 일행은 최종 부사장을 만나 폐쇄결정으로 초토화가 된 군산지역의 경제상황 및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배리앵글 GM 사장이 군산 공장은 인수 의향자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매각 처분 계획을 밝혔던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군산공장 활용방안이 조속히 이행될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난 31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를 찾아 지엠 군산공장의 조속한 재할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군산시는 정부가 한국GM 부평·청원 공장 지원에 상응하는 자금을 군산공장에 투자하는 등의 한국GM 군산공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전하며 정부주도로 제3자 매각, 임대, 위탁생산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지엠 군산공장을 조기에 가동하여 붕괴 되어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시간여행축제 추진위 회의 열어

군산시가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5월 30일 월명동 근대교육관에서 '제3차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15일 평가에 의해 선정된 축제운영대행업체인

(주)이벤트갤러리 커뮤니케이션과 축제위원회와의 첫 만남의 자리로 축제 프로그램과 거리형 축제 배치(안, 구)시청사 부지와 해망굴(1926년 개통, 국가등록문화재)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주행사장의 무대 위치를 변경하기로 하고 관광객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추억의 선창가극막 위치도 조정하

기로 하는 한편 지난해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더 업그레이드 된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을 대행사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시민참여 축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과 홍보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되었으며 관광객들이 더욱더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군산=김정훈기자

원광대 - 독립기념관과 연구 협력 협약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와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이 지난 29일 원광대 분관 회의실에서 연구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도종 총장과 이준식 관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류 협약식은 양 기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회, 문화, 역사 분야 교류를 통한 남북 간 교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학술 자료, 전문 인력을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독립운동 관련 전시·교육·연구 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도종 총장은 "원광대는 2015년부터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고, 지역 공동체 연합을 기반으로 인문학적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로 HK+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협약을 넘어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실천 활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이준식 관장은 연구원 등 양측 관계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지난 100년을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역사 문화적 자원으로 바뀌어 한다는 취지로 강연에 나선 이준식 관장은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는 단재 신채호의 글을 인용하면서 "2019년은 대한민국 즉 민주공화국 성립 100년임을 기억하자"며, "1919년 3.1운동과 동시에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들로부터 3.1운동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된 감이있다고 평가된 이날 강연에서는 참석자들이 질의응답과 학술적 토론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